



# 정교회주보

제2539호  
2025년 8월 24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11주일  
성 코즈마스  
에틀리아의 사제순교자  
(제2조 • 조과 복음 11)

###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 사제순교자 찬양송 ..... 84
- 성당 찬양송
- 성모 탄생 축일 시기송 ..... 186
- 사도경 : 고린토 전 9,2~12 (봉)211
- 복음경 : 마태오 18,23~35 ... 11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 사진 설명

## 추도식의 쫄리바

**추**도식은 고인을 기억하고 영혼의 안식을 기원하는 중요한 예식이다. 죽음을 삶의 끝이 아닌,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정교회의 신앙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추도식의 쫄리바(사진)는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깊은 뜻을 담고 있으며, 주요 재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쌀밥이나 삶은 밀 : 밥과 밀은 생명의 재순환을, 땅에 심어진 씨앗이 '죽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싹이 트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이는 죽어서 땅에 묻힌 육신이 때가 되면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임을 의미한다.(고린토 전 15,42~44 참조)

2. 흰 설탕 : 쫄리바를 덮은 하얀 설탕은 주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눈처럼 하얗게 빛났던 주님의 옷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입었던 흰옷을 상징한다.

3. 계피 : 쫄리바 가운데에 계핏가루로 십자가를 만들어 놓는데, 계피의 짙은 밤색은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해주는 풍요로운 땅을, 그리고 계피의 향은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향기를(에페소 5,2 참조) 상기시켜 준다.

# 이웃의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까?

조성암 암브로시오스 한국 대주교



**오** 늘 8월 24일은 에틀리아의 사제순교자 코즈마스 성인(1714-1779)의 축일입니다.

성인은 그리스인들이 터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기 그리스인들은 큰 고통을 겪었는데, 터키 지배자가 여러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써서 정교회 신자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코즈마스 성인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세계 총대주교의 축복을 받아 도시와 마을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선교 사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이여, 제가 어떻게 이런 사명을 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50년 전 고향을 떠나 여러 지역을 여행했는데, 특히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아토스 성산에서 17년을 머물렀으며, 그곳에서 눈물로 제 죄를 회개했습니다.

성스럽고 거룩한 복음서를 묵상하던 중, 그 안에서 많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내용은 진주, 보석, 보물, 풍요로움, 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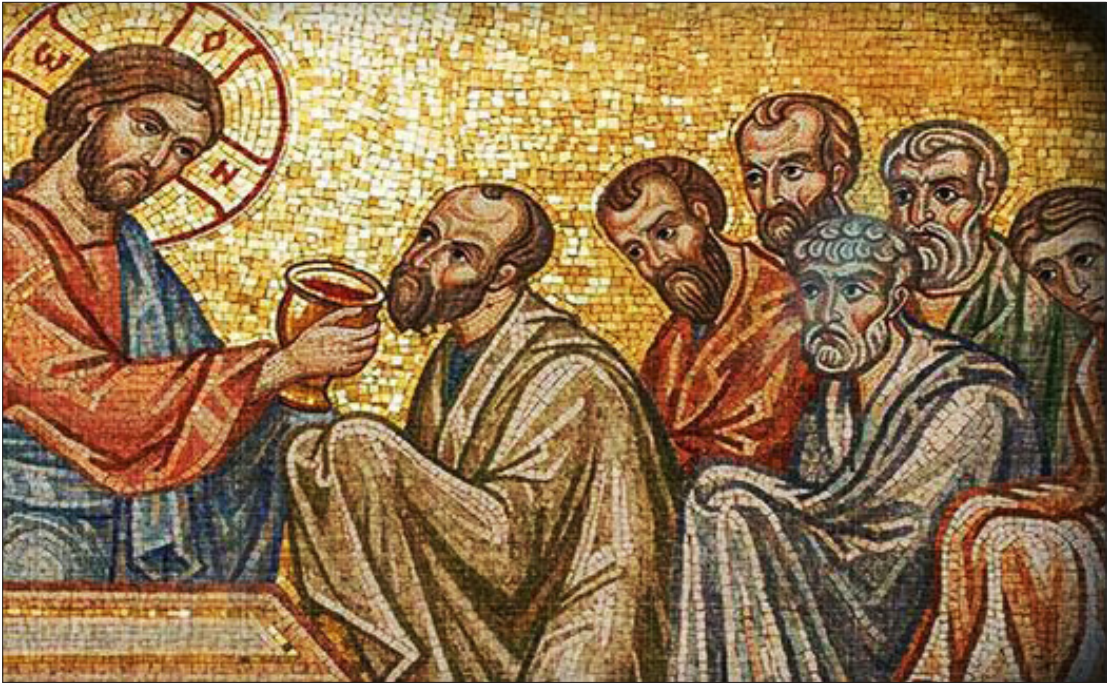
환희,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특히 눈여겨본 구절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형제들의 구원도 염려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형제들이여, 너무도 감미롭고 달콤한 주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나무를 갹아 먹는 벌레처럼 수년 동안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적 아버지들에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모두 저에게 그것은 선하고 거룩한 일이라며 이 길을 가라고 격려하셨습니다. 특히, 소프로니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격려와 거룩한 축복을 받고, 저는 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모두 내려놓고,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제 형제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코즈마스 성인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성인의 본보기를 통해 우리도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겠습니다.

# 성찬예배는 천국으로 통하는 창문입니다. (1)

에밀리아노스 원로(1934-2019, 아토스 성산 시모노페트라 수도원장) /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만**일 당신이 산 너머에 있는 멋진 곳을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그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는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장소로 말입니다. 성삼위의 끝없는 찬란한 빛으로 장식되고, 아름답게 꾸며지고, 환하게 빛나는 바로 그 공간입니다.

모든 교회는 천국의 본보기이고, 양식이며, 형태이고, 형상이며,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있다고 느낍니다.

교회 위에는 왜 그토록 큰 돔(반구형 지붕)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들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시작되면 열리는 그토록 ‘아름다운 문’은 왜 거기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어떻게 열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비롭고도 또한 참으로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영혼 안에 이런 실제 현실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까?

하지만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모든 종류의 개와 말, 여러 형태의 식물과 자동차, 휴대폰 상품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정작 우리 삶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주에 계속)



##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8월 30일(토) 축일을 맞이하는 한의종 알렉산드로스 신부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중보로 항상 건강하시고 주님의 양떼를 잘 이끌어주시길 기도합니다.

### 주간 예배 안내

- \* 8월 29일(금)  
세례자 요한 참수 기념일
- \* 8월 30일(토)  
성 알렉산드로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출국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그리스에서 학술 강연, 세계 총대주교청 방문, 그 외 다양한 교회 현안들 처리를 위해 8월 20일 출국하여 9월 24일 귀국 예정입니다. 하느님의 보호로 안전한 여행 되시길 기원합니다.

### ■ 주그리스 한국 대사 방문

지난 13일(수), 임주성 주그리스 한국 대사가 서울 성당을 방문하여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교회 전반, 세계 총대주교청의 역할, 기후 문제에 대한 세계 총대주교청의 기여, 서울에 정교회 교육문화센터의 건립 필요성, 아토스 성산, 정교회 성화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세 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 알림

### ■ 전주 성모 안식 성당 축일 소식

성모 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14일(목)에는 대만과, 아르토클라시아 의식, 행렬이, 15일(금)에는 축일 조과, 성찬예배, 광복절 영광식이 조경진 예레미야 신부, 정종혁 일라리온 신부, 박인곤 요한 신부의 공동 집전으로 거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랑의 오찬을 나누었고, 주일학교 학생들의 노래와 악기 연주 등으로 성당 축일을 기념했습니다.

특히 서울, 인천, 울산, 춘천 등에서 신부님들과 신자들이 먼 길을 오셔서 성당 축일을 함께 축하하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기쁨 가운데 풍성한 축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과 성모님께 영광을 드리며, 함께 해주신 신부님들과 여러 지역 신자들 그리고 축일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 인천 성당 세례 성사

지난 주일(17일), 성 바울로 성당에서 나창규 다니엘 대신부의 집전으로 성찬예배와 함께 세례성사가 거행되어 3명의 예비자가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세례자: 정연욱 테오도로스, 남궁수빈 에프렘, 주호라 조이

### ■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개관

지난 12일(화),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이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정부 대표, 서울시장, 여러 교회 지도자들, 많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교구에서는 암브로시오스 대주교와 임종훈 안토니오스 신부가 참석했으며, 대주교는 축사를 전달했습니다. 대교구에서는 이 문화관에 복음경과 성찬예배용 성물들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 ■ NCKK 총무 후보자 방문

지난 18일(월), NCKK 총무 후보자 2명이 NCKK 회장직을 역임 중인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를 방문하여, 앞으로의 계획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습니다.